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이 한 우**

I. 서론

1. 문제 제기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선언한 이후 전면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제 30년을 맞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국처럼 급속한 정치체제 개혁을 유보하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베트남의 1991-2014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7.2%였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에 연평균 약 8%였으나, 2000년대 이래 연평균 약 6.5%를 보이고 있다. 대외교역은 1986년 30억 달러로부터 2000년 301억 달러, 2010년 1,571억 달러, 2014년 2,98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출만은 1986년 8억 달러로부터, 2000년 145억 달러, 2010년 722억 달러, 2014년 1,50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GSO 2004: 1519;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58-B00005).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날카롭고 적절한 논평으로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본 저자는 미흡한 부분을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asia@sogang.ac.kr

GSO 2015: 511). 1인당 GDP는 1990년 100 달러 이하에서 2014년 2,052 달러로 20배 증가하였다. 이런 성과로 많은 연구자들은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동유럽이나 구 소련의 개혁과정과 대비하여 성공적 사례로 평가한다. 이 성과는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의 길을 따라 갔던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베트남과 유사한 개혁과정에 있는 중국에도 이 발전국가 모델을 적용하여 경제성장과정의 특성을 논하였다(White 1988; 이홍영 1997; 백승욱 2003; 윤상우 2005; 이민자 2008).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발전 경험을 베트남에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한 연구도 산출되었다(Reidel 1993; Hiebert 1996; Tran 1996; Beeson & Pham 2012). 이들의 논지는 ‘강한’ 국가가 경제부문에 개입하여 경제발전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개념화된 발전국가 모델을 개혁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적용하는 경우 어떠한 분석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서 핵심은 사유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하에서 ‘강한’ 국가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제부문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개혁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부문에 대하여 통제하던 체제로부터 부분적으로 통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전개되어온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 왔지만 개혁과정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아시아 개혁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호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점차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기반의 차이에서 생기는 체제 특성으로 개혁사회주의 국가들은 외연에서는 유사하지만 내포가 다른 발전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의 개혁 30년 간 진행과정을 통해, 그 발전유형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의 경제성장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경제부문별·소유부문별로 거시적으로 살피고, 경제적 변화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과정이 어떤 발전유형인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로 베트남의 현상을 이해하는 해석적 사례연구(interpretative case study)를 추구하여, 일본의 산업화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념화된 발전국가 모델을 베트남의 개혁과정에 비추어 베트남의 경제성장 패턴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식 발전 모델 또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개혁모델을 찾아보고,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성과 베트남적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발전 모델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도 있으나, 그간의 개혁과정을 현상적으로 볼 때 베트남은 발전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인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관점에서 발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 및 국가-노동 관계 속에서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 국가능력, 유능하고 응집력 있는 관료제 및 선도기구(pilot agency)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Önis 1991). 특히, 국가의 산업정책의 발전지향적 특성과 국가자율성을 판단할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에서 핵심은 사유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하에서 ‘강한’ 국가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제부문에 개입한다는 것 인바, 순수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의 성격을 가지지만, 후발국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개혁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부문에 대하여 통제 하던 체제로부터 부분적으로 통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전개되어온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아시아 개혁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호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수렴하여 현상적으로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기반의 차이에서 생기는 체제 특성으로 개혁사회주의 국가들은 외연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속성을 지니는 발전국가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적, 개혁사회주의적, 베트남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베트남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전략

1. 산업정책 방향

1975년 통일 이전 북베트남은 농업과 경공업의 기반 위에 동시에 중공업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북베트남은 1961-65년간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발전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수준을 중공업 부문의 발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따르고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공업 성장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1964년부터 베트남전쟁이 열전화하면서 북베트남의 대다수 산업시설은 파괴되었고 경제발전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Nguyen Thi Tue Anh et al. 2014: 4). 통일 이후 베트남은 북부의 천연자원과 공업, 남부의 농업과 경공업을 상보적으로 결합시켜 경

제발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Beresford 1989: 4).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결함, 남부의 사회주의화에 대한 저항, 1978년 12월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수조치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침체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개혁 초기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부문의 개혁은, 1970년대 후반 지방 간부와 농민 간에 탈법적 생산물계약제가 확산되자, 1981년 생산물계약제를 공식적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생산물계약제가 1980년대 초반 생산성 증대효과를 나타냈지만 1980년대 중반에 정체되자, 공산당과 정부는 1988년 농업부문에서 농가경영제를 도입하였다. 농가경영제는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장기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는 소유권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농업부문의 개혁정책은 생산물 증대효과를 나타내, 베트남은 1989년부터 쌀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농업부문은 초기 개혁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의 기반이 되었고, 이후 정부는 기업 개혁으로 개혁의 중점을 이동하였다. 베트남이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한 이래, 구체적 개혁정책들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였고, 1990년 기업법과 사영기업법을 입법하여 초기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주요 국영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투자 확대와 국영기업의 활성화에 집중되었다.

1) 외국인 투자 유치

1988년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당시로서는 투자 기업에 매우

우호적 조건을 제공했다고 평가되었고, 이후 외국인투자의 급증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¹⁾ 특히 1994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 베트남의 수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은 1991년 13억 달러로부터 2010년 200억 달러로 15배 증가한 규모였고, 그 집행액은 1991년 4억 3천만 달러로부터 2010년 110억 달러로 20년만에 25배 증가하였다(GSO 2014: 177). 1990년대 초반 베트남의 공산품 수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산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베트남 전체 수출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했는데 반해, 베트남 국영기업은 총 수출의 10-15%를 담당하였을 뿐이다(Vu Thanh Tu Anh 2015: 10). 이처럼 외국인투자 부문은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국영기업 개혁²⁾

베트남의 산업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산업부문별 정책보다는 소유부문별 정책을 기본으로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베트남 정부에게 가장 큰 과제는 국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 하에서 베트남 정부는 먼저 1991년 국영기업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 국영기업수를 약 12,000개로부터 1994년 4월 기준 약 6,300개로 감축하였고 이후 구조조정을 계속하여 왔다. 동시에 정부는 국영기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왔다. 정부는 1995년 이전에 법적 규정

1) 최근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 정부는 2억 8,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기 4년간은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10%를 적용하고, 이후 15년간 일반법인세율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해주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 일반법인세율은 20%이다(박종민 2016).

2) 이 부분은 이한우(2013)에서 일부 관련 부분을 가져온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 논문에서 논의하였다.

및 행정명령으로 국영기업을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운영하였는데, 1995년 국영기업법을 제정하며 법규를 통해 운영되도록 제도화하였다(Nguyen Dinh Cung 2014: 253). 이후 국회는 2003년 국영기업법을 개정하였고, 2005년 통합 기업법을 제정하며 국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 내에 포함하였고, 국영기업이 2010년 6월까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³⁾

국영기업 개혁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것은 정부가 전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주식회사화(equitization)⁴⁾, 매각, 위탁 경영, 양도, 임대,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처분하여 구조조정하는 한편, 대형 국영기업을 기반으로 몇 개의 관련 기업을 묶어 대형 기업인 ‘총공사’(Tong cong ty, 總公社) 또는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형태인 ‘기업집단’(Tap doan Kinh te)을 설립하는 것이었다.⁵⁾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 7월까지 5,370개의 국영기업이 주식회사화, 매각, 양도, 임대,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였고 이 가운데 약 3,980개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Nguyen Hoang & Nhat Bac 2011). 그러나 2007년 이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는 지체되었고, 2011-2013년간 99개 기업만이 주식회사화하여, 2014년 1월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한 국영기업은 4,065개였다. 그 결과 기업에서 정부가 절반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국영기업은 2013년 말 기준 3,199개, 이 가운데 정부가 100% 자본을 소유한 국영기업은

3) 실제로, 국영기업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은 지체되었다(Nguyen Dinh Cung 2014: 254).

4) 주식회사화는 기존에 국가가 100% 보유하던 국영기업의 소유권을 정부가 일부 보유하고, 기업고용인인 경영자 및 노동자, 그리고 일반인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국유경제의 전면적 사유화에 부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주식화’(Co phan hoa: equitization)라고 한다.

5) ‘총공사’는 국영 대형기업을 일컬으며, 영어로는 ‘General Corporation’으로 표기된다. ‘기업집단’은 대형 총공사를 기반으로 재벌기업 형태로 재조직된 기업연합체이며, 영어로는 ‘Business Group’으로 표기된다.

2014년 1월 기준 949개로 감소하였다(GSO 2015: 223; Nguyen Dinh Cung 2014: 249, 257-258).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94년 3월 수상 결정으로 국영기업 중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대형 기업인 총공사로 재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⁶⁾ 총공사 수는 1990년대 중반에 90개(총공사90 72개, 총공사91 18개)였다가 2008년 67개(각 56개, 11개)로 되었으며, 2012년 말 현재 90개(각각 80개, 10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05년부터 일부 대형 총공사를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기업집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13개를 시험적으로 설립하였다가, 이후 3개를 취소하여 2013년 말 기준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3) 사영기업 활성화

베트남 정부의 사영기업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신 기업법을 통과시키고 2000년부터 시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 베트남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1990년 기업법,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990년 사영기업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9년 기업법은 사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간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사유경제부문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에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차별하고 있었다. 사영기업이 경제력을 쥐면 결국에는 공산당의 정치권력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2000년대 초까지도 여전히 있었다(Vu Thanh Tu Anh 2015: 6). 1999년 기업법은 정부가

6) 수상결정 제90호는 최소 5개 기업을 포함하여 자본규모 5천억 베트남 동(dong)(US\$ 3,300만) 이상인 총공사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수상결정 제91호는 최소 7개 기업을 포함하여 자본규모 1조 베트남 동(US\$ 6,600만) 이상인 총공사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각각 총공사90, 총공사91로 불린다.

금지하는 부문이 아닌 부문에서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기업의 설립을 허가제로부터 등록제로 변경하였기에, 2000년 이후 사영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새로 등록된 기업은 2000년에 1만 4천여 개, 2002년에는 2만 1천여 개였는데, 2년간 등록 기업수는 1991-99년간 등록한 기업 수와 비슷한 숫자였다. 2000년에 등록한 기업의 경우 완전히 새롭게 등록된 기업은 80% 정도였고, 일부 기업이 그 이전의 가계 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등록한 것이었다. 이 중 사영기업의 비중은 40%, 유한책임회사의 비중은 50%였고, 기타 단수 구성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업생산량 중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비중이 1999년 10.9%로부터 2000년 18.3%, 2001년 20.3%로 급증하였다. 동시에 65만-7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UNDP & CIEM 2002: 132-133, 170-171). 그러나 사영기업은 기업수로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자본 규모로는 대부분 중소 규모여서 아직까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단지 고용 창출 면에서는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래 소유 형태별 기업의 자본 규모와 노동자수를 비교해보면, 부문별 규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영기업의 평균 규모는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자본과 고용인수에서 월등히 작다. 2012년 기준 기업별 평균 자본규모는 국영기업이 1조 1,410억 동(dong), 사영기업이 240억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2,880억 동이었으며, 기업별 평균 노동자수는 국영기업이 422명, 비국유기업이 20명, 외국인투자기업이 303명이었다(Tran Dinh Thien 2014: 85-86).

2005년에 베트남 정부는 기업 형태별로 공정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합 기업법을 입법하게 되었다. 2005년 기업법은, 모든 기업들이 이 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규정하였고, 국영기업들은 4년 이내인 2010년 6월까지 유한

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단일한 기업법이 모든 소유형태의 기업들에 적용되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한 동등한 경제활동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목표를 표방해왔지만, 실제로 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영기업에 우호적이었다. 근래 2011년에도 국영기업은 생산부문의 자산과 토지의 70%를 사용하고 생산부문에 투입된 ODA 중 70% 이상, 신용대출의 60%를 차지하였다(Pham Sy Thanh 2012: 263).

Ⅲ. 산업정책의 효과

1. 산업부문별 성장과 변화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표 1>에서 보듯이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한 1986년 이후 GDP 증가율은 1991년까지 6% 이하였다가, 1992-97년간에는 8~10%, 연평균 GDP 증가율 8.8%로 고성장을 나타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베트남의 경제성장세도 둔화하여 GDP 증가율이 1998-99년간 5.8%, 4.8%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GDP 증가율 7% 전후로 회복되었다가 2007년 8.5%를 기록하였고, 2000-2007년간 연평균 GDP 증가율 7.6%로 제2의 고성장 시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베트남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2013년까지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표상으로 보면, 베트남의 성장세는 개혁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기에,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더불어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이래 세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베트남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1> GDP 증가율(%)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2.8	3.6	6.0	4.7	5.1	5.8	8.7	8.1	8.8	9.5	9.3	8.2	5.8	4.8
농림 수산업	3.0	-1.1	3.7	7.0	1.0	2.2	6.9	3.8	3.4	4.8	4.4	4.3	3.5	5.2
공업/ 건설	10.9	8.5	5.0	-2.6	2.3	7.7	12.8	12.6	13.4	13.6	14.5	12.6	8.3	7.7
서비스	-2.3	4.6	8.8	7.9	10.2	7.4	7.6	8.6	9.6	9.8	8.8	7.1	5.1	2.3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6.8	6.9	7.1	7.3	7.8	8.4	8.2	8.5	6.3	5.3	6.4	6.2	5.3	5.4
농림 수산업	4.6	3.0	4.2	3.6	4.4	4.0	3.7	3.8	4.7	1.8	3.3	4.0	2.7	2.6
공업/ 건설	10.1	10.4	9.5	10.5	10.2	10.7	10.4	10.2	6.0	5.5	7.2	6.7	5.8	5.4
서비스	5.3	6.1	6.5	6.5	7.3	8.5	8.3	8.9	7.4	6.6	7.2	6.8	5.9	6.6

주: 1986-2009년간은 1994년 가격 기준, 2010-2013년간은 2010년 가격 기준.

출처: GSO(2004: 1106); GSO(2011: 131); GSO(2014: 147)

또한, 빈곤율 및 인간개발지수(HDI) 등을 보면, 베트남이 이 분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보여 경제성장이 사회발전에 연계되었음을 나타냈다. 베트남의 빈곤율은 1990년대 초 58%였는데, 2008년에 14.5%, 2010년에 10% 이하로 감소하였다. 베트남이 2010년 도시의 빈곤선 기준을 기존의 1인 1일당 1.34 달러로부터 1.61 달러로 인상하고 농촌의 빈곤선 기준을 1.03 달러로부터 1.29 달러로 인상하였는데, 새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14.2%였다. 이런 성과로 인해 베트남 경제성장이 “빈자 우호적”(pro-poor) 성장이었다고 평가된다(Kozel 2014: 1, 15 & 23). 한편, 인간개발지수(HDI)를 통해 사회발전 수준을 보자면, 베트남의 HDI는 1990년에 0.47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0.575, 2010년에 0.653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유사한 개혁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의 HDI는 1990년에 0.501, 2000년에 0.588, 2010년에 0.699로 베트남의 수치보다 약간씩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의 HDI는 2014년 0.666을 기록하며, 필리핀(0.668), 인도네시아(0.684) 등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중국(0.727)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⁷⁾ 이러한 베트남의 비교적 성공적 경제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살펴보자.

<표 1>에서 산업부문별 성장률을 보자면, 농림수산업 분야는 1989년 한 해를 제외하고 1991년까지 대체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7%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1993년부터 2008년까지 4% 전후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공업 및 건설 부문은 1992-1997년간 연평균 1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1998-99년간 연 8% 전후, 2000-2007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보였다. 그 성장세는 세계 경제상황이 악화된 2008년 이후 연간 5~7%로 하락하였다. 서비스 부문은 개혁정책 채택 이후 곧 바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GDP 증가율은 1988년 8.8%를 나타낸 후 1997년까지 연간 7~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동아시아 경제위기 발생으로 서비스 부문의 GDP 증가율은 1998-2000년간 연 6% 미만으로 하락했고, 2001-2003년간 연 6~6.5%로 약간 증가했다가, 2004-2008년간 연 7~9%, 2009년부터 7% 이하(2010년 예외)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보면, 개혁 초기 농업부문의 지속적 성장이 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공업 및 건설 부문의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였다고 이해된다. 서비스 부문도 1990년대 초부터 10% 전후의 성장세를 나타내 경제성장의 큰 몫을 차지하였다. 단지, 서비스 부문은 1998-99년간 경제

7) <http://hdr.undp.org/en/composite/trends> (검색일: 2016.04.30)

위기 시기에 타부문보다 더 취약함을 보였고, 2008년 이래 경제위기 시기에 공업부문과 함께 취약성을 나타냈다.

2. 소유부문별 성장과 변화

소유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86-2013년간 전체적으로는 국유경제부문의 성장률은 연평균 6.25%로 비국유부문 6.26%와 매우 비슷한 정도였다(<표 2> 참조). 국유경제부문은 1992-97년간 및 2000-07년간 고성장 시기에 각각 10%, 7%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그 이외 시기에는 5%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유경제부문이 개혁 초기 1990년대에 높은 성장을 나타낸 것은 부분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영기업과 제휴하여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국유경제부문의 실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여를 뺀다면 1990년대 국유경제부문의 고성장은 지표보다는 실제로는 낮은 것이었다. 비국유부문 중 사유경제부문이 연평균 18%를 기록해 급성장을 보였는바, 1992-97년간 연평균 11%, 2000-07년간 연평균 31%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08-09년간 경제위기 시에도 연평균 10%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가계경제부문은 1998-99년간의 경제침체기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연평균 6~7%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집체경제부문은 전 기간에 걸쳐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투자부문은 1992-2007년간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비교적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 1986~2013년간 전 기간에 연평균 16%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표 2> 소유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기간	1986-91	1992-97	1998-99	2000-07	2008-09	2010-13	1986-2013
경제성장률	4.68	8.77	5.27	7.63	5.82	5.80	6.82
국유부문	2.73	10.15	4.06	7.14	4.18	4.91	6.25
- (그 중, 국영기업)	1.03	10.72	4.37	7.24	2.88	4.19	5.88
비국유부문	5.01	6.31	4.00	7.22	7.00	6.23	6.26
- (사유경제부문)	-	11.17	5.59	30.74	10.20	6.98	17.84
- (가계경제부문)	-	7.41	3.70	4.94	6.68	6.55	5.72
- (집체경제부문)	-	3.56	4.77	3.96	2.93	3.08	3.69
외국인투자부문	0.00	24.35	18.33	11.05	6.33	6.63	15.88

출처: Nguyen Cao Duc(2015: 6-7)

소유부문별 성장의 동력을 찾자면, 국유부문이 1990년대 고성장 시기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 시기에는 급격히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고성장 시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부문은 비국유부문 중 사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으로, 이 두 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다. 이를 통해 보면, 1990년대 고성장 시기에 성장의 주동력은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 2000년대 고성장 시기에 성장의 주동력은 사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유형태별 GDP 비중을 보면, 국유경제부문이 계속하여 하락해 왔다(<표 3> 참조). 국유부문은 1990년대 하반기까지 전체 GDP 중 40%를 생산하다가 1999년부터 40% 이하로 감소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 기준 32%를 기록하였다. 비국유부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증가, 감소가 있었지만 2013년 48%를 차지하였다. 외국인투자부문의 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20%에 달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국유부문의 GDP 감소분이 외국인투자부문의 증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3> 소유형태별 GDP 비중(%)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유	39.7	37.7	33.7	33.4	31.8	31.1	34.3	38.2	40.1	40.1	39.9	40.5	40.0	38.7
국내 비국유									53.5	53.5	52.7	50.5	50.0	49.0
외국인 투자부문	60.3	62.3	66.4	66.6	68.2	68.9	65.7	61.8	6.4	6.3	7.4	9.1	10.0	12.2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유	38.5	38.4	38.4	39.1	39.1	38.4	37.4	35.9	35.5	35.1	33.7	32.7	32.6	32.2
국내 비국유	48.2	47.8	47.9	46.5	45.8	45.6	45.6	46.1	46.0	46.5	47.5	49.3	49.3	48.3
외국인 투자부문	13.3	13.8	13.8	14.5	15.1	16.0	17.0	18.0	18.4	18.3	18.7	18.1	18.1	19.6

주1: 베트남 정부는 1993년까지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으로 구분하다가, 1994년부터 국유부문, 비국유 국내부문, 외국인투자부문으로 나누어 통계를 내고 있다.

주2: 2013년 통계는 추계치임.

출처: GSO(2004: 1112-1115); GSO(2005: 74); GSO(2008: 76); GSO(2011: 134); GSO(2014: 150)

공업에서 소유형태별 생산량 비중을 보면, 국유부문은 ‘도이머이’ 정책을 선포한 1986년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50%를 상회하였고,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30% 이하, 2007년에 20%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약 16%로 되었다. 국유부문 비중의 감소는 전체 GDP보다 공업생산량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1986년에 국유부문의 비중은 GDP 중 40%, 공업부문에서 56%로 높았으나, 2000년에 그 비중은 각각 38.5%, 34%로 공업에서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처음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국유부문의 비중은 전체 GDP에서 32%를 차지하는 반면 공업부문에서 1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공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국유부문의 비중은 1990년대 말까지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가계경제부문의 증가가 국내 비국유부문의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나, 2000년대 이래 사영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사유경제부문의 증가가 이어져, 전체 공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32.5%에 이르게 되었다. 외국인투자부문은 개혁정책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에 33%, 2000년에 41%, 2013년에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표 4> 소유형태별 공업생산량 비중(%)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유	56.3	55.9	56.5	54.3	54.1	55.8	55.3	56.4	57.1	57.3	49.6	47.3	45.4	39.5
국내 비국유	43.7	44.0	43.5	43.1	41.4	31.5	29.4	28.2	27.6	28.2	23.9	23.7	21.4	21.9
집체	28.1	27.0	23.9	15.8	12.2	4.8	2.8	2.1	1.1	0.8	0.6	0.5	0.5	0.5
사유	0.4	0.5	0.5	0.7	0.7	1.4	2.8	4.0	2.4	2.4	2.4	2.5	2.4	2.1
가계	15.1	16.4	19.0	26.4	28.4	25.2	23.8	22.1	21.4	20.7	15.5	14.0	11.7	12.3
혼합	-	-	-	0.2	0.1	-	-	-	2.7	4.3	5.5	6.6	6.7	6.9
외국인 투자부문	-	-	-	2.6	4.5	12.7	15.2	15.4	15.2	14.5	26.5	29.0	33.2	38.6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유	34.2	31.5	31.5	29.4	27.4	24.9	22.1	19.9	18.1	18.3	19.1	17.6	16.9	16.3
국내 비국유	24.5	27.0	27.0	27.5	29.0	31.3	33.5	35.5	37.3	38.5	38.9	37.8	35.9	33.6
집체	0.6	0.5	0.6	0.4	0.4	0.4	0.4	0.3	0.4	0.4	0.4	-	-	-
사유	14.2	16.3	16.7	18.4	20.4	22.8	25.6	27.8	30.1	31.4	32.5	-	-	-
가계	9.7	10.2	9.7	8.7	8.2	8.1	7.5	7.3	6.9	6.7	6.0	-	-	-
외국인 투자부문	41.3	41.5	41.5	43.1	43.6	43.8	44.4	44.7	44.6	43.2	42.0	44.6	47.2	50.1

주1: 1986-1990년간은 1982년 가격 기준, 1991-95년간은 1989년 가격 기준, 그 이후는 경상가격 기준임.

주2: 베트남 통계총국은 『통계연감』에서 1986-99년간 국내 비국유 경제부문의 하위 부문을 집체경제부문, 사유경제부문, 가계경제부문, 혼합경제부문으로 분류하다가 2000년 통계부터 혼합경제부문을 삭제하고 세 부문의 통계만 제시하고 있음.

며, 또한 2011년 통계부터 비국유부문의 하위 부문별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출처: GSO(2004: 1390-1391)에서 필자 계산, GSO(2001: 253); GSO(2006: 325);
GSO(2011: 423); GSO(2014: 479)

근래 공업 생산에서 소유부문별 증가율을 보면, 국유부문은 2006년에 6%, 2008-11년간 평균 7.8%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국내 비국유부문은 같은 기간에 각각 26%, 14.7%를 나타냈고, 외국인투자부문은 각각 20%, 14.7%를 나타내, 공업 생산에 있어서 국내 비국유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증가율이 국유부문보다 두 배 정도 높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Nguyen Thi Tue Anh et al. 2014: 9). 이를 보면, 공업에서 외국인투자부문의 우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내 비국유부문이 이를 이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유부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베트남 '발전 모델' 평가

1. 동아시아 발전국가

베트남 개혁과정 30년을 지내며, 일부 학자들은 발전 모델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언뜻 보면 베트남의 '발전 모델'이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라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발전지향적 목표 하에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에 베트남 '발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발전국가 개념은 찰머스 존슨(Charmers Johnson)이 일본을 사례로 시장경제 사회에서 국가가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특성을 평가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르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을 분석하며, 특히 홍콩을 제외한 세 나라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발전지향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한 제2진 발전국가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제3진의 발전국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제2진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발전국가는 ‘강한’ 국가가 엘리트로 구성된 관료들로 선도기구를 갖추고, 경제에 개입하여 시장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및 금융정책, 국내 저축을 통한 자본 동원, 수출 확대 정책 등의 공통점을 갖는다. 문화적으로는 유교문화에 기반하여 근면함과 질서를 중시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이 국가들에 대한 보호주의 허용 및 미국 시장의 개방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국가의 특징으로 노동억압정책과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들 수 있다(Önis 1991). 한편,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는 여러 편차를 보였다(보겔 1993).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을 도입하여 국내 경제성장에 활용하였고, 사영기업 재벌 중심 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을 채택한 반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사영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영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싱가포르는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별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단일한 발전국가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평가도 제기되었다. 제3진 발전국가들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대만 정도로 높은 정도의 국가 자율성을 지니지는 못했고 시장경제에 더 의존하였지만 1980년대까지 자국 산업을 양성하는 산업정책과 국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사적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제도화시켜 성장지향의 경제정책을 펼쳤다(박은홍 2008).

이러한 발전국가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개념의 최소 규정을 가지

고 여타 국가의 개혁과정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지향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즉 그것은 국가-기업 및 국가-노동 관계 속에서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강한'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개입, 유능하고 응집력 있는 관료제 및 선도기구 존재,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선별적 산업정책, 수출 증대 등으로 나타났다(Önis 1991).

2. 베트남 '발전 모델'의 평가

1) 경제성장의 동력

이상에서 검토한 베트남의 개혁과 경제성장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중국의 개혁과정을 동아시아 발전국가로 분석한 것처럼, 베트남의 개혁과정도 유사한 유형에 따라 왔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여 베트남의 '발전 모델'은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제성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이 주동력이었고, 2000년대 외국인투자부문과 사유경제부문이 주동력으로, 시기별로 각 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을 보였다. 공업 생산에 있어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부문의 비중이 절반 정도였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인투자부문은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급성장하였고 이후 2000년대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국내 비국유부문 중 가계경제부문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사유경제부문이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추세는, 개혁 초기에 국유경제부문의

지속, 외국인투자의 증가, 가계경제의 활성화를 특징으로 하다가, 개혁 중반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 국유경제의 비중 감소, 외국인투자 부문의 지속적 성장, 사유경제부문의 성장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혁 초기에는 국유경제부문, 외국인투자부문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중반을 넘어서며 외국인투자부문과 사유경제부문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베트남도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에 기업 유형별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보자. <표 5>에서 보듯이 1995년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전체 수출의 73%를 담당하였으나, 그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2003년에 절반 이하로 되었고 2013년에 33%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비중은 20% 이하였다 (Nguyen Sinh Cuc 2012: 180). 이렇게 국내 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기업 유형별 수출 점유 비중(%)

연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 기업	73.0	65.7	59.4	53.0	54.8	52.9	49.6	45.3	42.8	42.1	42.8	44.9	46.8	45.8	43.1	36.9	33.2
외국인 투자 기업	27.0	34.3	40.6	47.0	45.2	47.1	50.4	54.7	57.2	57.9	57.2	55.1	53.2	54.2	56.9	63.1	66.8

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에는 원유 수출 포함.

출처: GSO(2002: 370); GSO(2005: 359); GSO(2008: 449); GSO(2011: 521); GSO(2014: 530)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베트남의 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의 비

중은 아직도 낮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작한지 약 10년만에 저급 기술 제품으로부터 중급 기술 제품으로 그리고 이후 고급 기술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이전시킨 것과 대비된다. <표 6>에서 보면 전체 수출 품목 중 자원 기반 상품과 저급 기술 제품 수출의 비중이 있어, 베트남은 1995년 81%로부터 2008년 74%로 약간 감소한 데 그쳤으나, 유사한 개혁과정에 있는 중국은 같은 시기에 47%로부터 24%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8년 중급 기술과 고급 기술 제품 생산비중의 경우, 베트남은 20%였으나 중국은 6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크다.

<표 6> 기술 수준별 수출품 구성(%), 1986-2008

연도 국가	자원 기반 상품			저급 기술 제품			중급 기술 제품			고급 기술 제품		
	1986	1995	2008	1986	1995	2008	1986	1995	2008	1986	1995	2008
한국	7.4	5.6	11.1	33.4	17.0	3.4	14.0	11.1	11.5	35.1	53.9	62.0
대만	-	5.9	9.7	-	18.0	5.4	-	12.0	13.1	-	49.6	54.1
태국	53.4	25.5	24.7	18.5	19.2	5.9	9.6	7.6	10.5	11.3	35.4	44.1
말레이시아	60.5	22.7	32.2	4.8	6.2	4.1	5.7	7.3	7.9	26.0	56.7	35.5
중국	29.5	13.5	5.3	20.7	33.7	18.5	2.6	12.0	13.5	2.6	23.6	50.5
베트남	-	51.4	43.6	-	29.9	29.9	-	2.0	7.3	-	7.2	12.3

출처: Nguyen Duc Nhat & Nguyen Ngoc Anh(2011: 159-160)

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지 않고 1차 산업 및 노동력에 의존한 경공업 부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업 생산에서 고급 및 중급 기술을 채용한 생산품의 비중은 2005년 16.4%에서 2012년 18%로 약간 증가하였을 뿐이며, 저급 기술 채용 생산품의 비중은 2005년 40%에서 2012년 41%로 거의 유사하고, 자원개발 생산품의 비중은 2005년 43.6%에서 2012년 41.1%로 약간 감소하였다(Tran Dinh Thien 2014: 40). 고

급 기술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예컨대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국내 기업의 고급 기술 제품 수출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 소유부문별 경제적 효율성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모델로 한 베트남의 기업집단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업집단에 속한 일본과 한국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영기업이었으나 베트남은 국영기업으로, 베트남의 기업정책은 국영기업을 대형화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수 년 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확대했지만, 베트남의 기업집단은 수출지향적이기보다 수입대체형 기업이 주를 이루었고 기업집단화 이후 10년이 되었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생산재 생산 기업과 중공업의 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은 낮아, 예컨대 1990년대 중반 베트남 국영기업의 철강 생산 비용은 동아시아 국가의 기업보다 30-40% 높은 수준이었다(Perkins & Vu Thanh Tu Anh 2010: 4).

베트남 정부의 기업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나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량 한 단위를 얻는 데 소요되는 자본의 양인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로 베트남의 소유부문별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표 7>에서 보면, 베트남의 국유경제 부문은 외국인투자부문에 비해 한계고정자본계수가 1992-97년 고성장 기간에 낮았지만, 그 이후 2007년까지 국내 비국유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에 비해 높았다. 국유부문의 한계고정자본계수는 2000-2007년간 성장기에 이전보다 낮았지만 국내 비국유부문과 외국인투

자 부문에 비해 높았다. 이렇게 국유부문의 한계고정자본계수가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국영기업들이 그 만큼 대규모 투자를 하였거나 국유부문의 투자 대비 생산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비국유부문의 한계고정자본계수는 국영기업의 1/2 내지 1/3 수준이어서, 비국유부문이 소규모 자본을 운용하며 자본 투자 대비 생산 효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였다. 외국인투자부문은 국내 비국유부문 대비 2배 정도의 한계고정자본계수를 보였다. 2008-2013년간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부문의 한계고정자본계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 대규모 투자가 급증한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영기업이 주로 자본 투자가 많은 대형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국내 비국유부문은 아직 자본 규모가 작지만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다. 국유부문을 외국인투자부문과 비교해 보면,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표 7> ICOR 계수로 본 베트남의 소유부문별 투자 규모 및 효율성, 1990-2013

기간	1990-91	1992-97	1998-99	2000-07	2008-09	2010-13
전 부문	3.47	3.84	7.23	6.79	12.02	11.41
국유부문	12.46	3.58	13.14	9.68	18.83	15.71
비국유부문	2.45	2.96	4.60	4.05	5.33	7.15
외국인투자부문	1.16	5.66	4.05	7.49	25.79	17.25

출처: Nguyen Cao Duc(2015: 11)

소유부문별 국가재정 및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영기업이 아직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국영기업의 국가재정 부담 비중은 2001-05년간 20%를 차지하다가 2006-10년간 18%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에 사영기업의 국가재정 부담 비중은 7%로부터 10%로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도 7%로부터 11%로 증가하였다. GDP 점유 비중에 대비한 재정 기여 비중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많고, 국영기업, 사영기업 순이었다. 이렇게 보면 국영기업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사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재정 부담 비중이 증가해 이 양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고용에 있어서 국영기업의 비중은 2001-05년간 44%에서 2006-10년간 2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사영기업의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40%로부터 55%로 급증하였고, 외국인투자부문은 16%에서 22%로 비교적 완만히 증가하였다. 국영기업은 고용 창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나, 사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여가 크며, 특히 사영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히 향후 베트남의 산업정책의 방향을 사영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표 8> 소유부문별 국가재정, 고용 및 GDP 기여도(%)

구 분	국영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2001-05	2006-10	2001-05	2006-10	2001-05	2006-10
재정기여도(원유 제외)	19.6	17.6	6.7	10.3	6.6	10.5
고용 비중	43.5	23.1	40.1	54.8	16.3	22.0
신 고용 창출	-4.1	-13.1	74.1	84.8	30.0	28.3
GDP 비중	30.3	27.8	46.7	46.1	14.6	17.9

출처: Nguyen Thi Huong(2012: 323).

이상의 분석은 베트남 경제가 국영기업 중심으로부터 사영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과 사회경제적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국영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아직까지는 중요하지만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의 이중적 목표와 역할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에서 국가의 역할은 개혁 초기부터 중시되었다. 한 베트남인 학자는 개혁으로 경제가 자유방임적으로 변하게 되어 국가의 역할이 적어지나, 이 과정에서도 경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지만 국가가 규제와 개입을 통해 관리하는 체제여야 한다고 하였다(Vu Tuan Anh 1994: 293). 한 일본인 학자는 이를 “규제된 시장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하였다(竹内郁雄 1994). 이처럼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관리와 규제 역할은 방기된 적이 없다. 국가는 계획수립자(planner), 규제자(regulator)이지만, 국가의 계획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향하여 높은 성과를 얻게 하는 유도적 계획(indicative plan)이어야 한다고 보았다(Vu Tuan Anh 1994: 296-297). 이처럼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계속하여 강조되어 왔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실현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공산당은 5년마다 개최하는 공산당대회에서 5년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사회-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또는 10년간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의 국가기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ttee)를 국가협력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와 통합하여 1995년 11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출범시켰다. 기획투자부는 산하에 중앙 경제관리연구원(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과 발전 전략연구원(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를 두어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입법안을 만들며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제도상 국가의 선도적 역할은 관철되고 있다.

국가의 선도적 역할은 기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자. 베트남은 기존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국유경제부문을 ‘관제고지’(commanding heights)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이후 국유부문에 선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CPV 2011: 10). 이런 이념적 지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대형 국영기업을 국가의 선도산업부문으로 정하여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재벌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베트남은 특히 한국의 재벌 중심 모델을 발전방향으로 채택하였다고 판단된다. 2005-2011년간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GDP 대비 기업 매출액에 있어, 한국이 49%였는데, 베트남은 37%로 인도네시아(25%), 대만(19%), 중국(2011년 14%, 2009년 20%, 2007년 18%, 2005년 17%)보다 높았다(Pham Sy Thanh 2012: 277). 기업의 총공사 및 기업집단화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유경제부문의 보존과 국영기업 개혁의 이중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절충적 정책의 산물이다(石塚二葉 2005: 26-27).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국유기업을 주식회사화한 이후에도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여 지배지주로서 기업을 여전히 정부의 관리 하에 두고 있기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은 상존한다. 기획투자부 산하 중앙경제관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영기업

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기업에서 정부의 주식 보유 비중은 절반 정도였다. <표 9>를 보면, 국유기업으로부터 주식회사화한 기업에서 정부의 주식 소유 비중은 2002년까지 30% 정도였다가 2003년에 55%까지 증가하였고, 2004년에 50%로 약간 하락하였다. 기업 내부자의 주식 보유 비중은 2002년까지 절반 정도였으나 2003년에 35%로 하락하였다. 기업 외부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은 20% 전후로부터 8%까지 증감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주식 소유 비중이 기업 내부자보다 적었던 것은 국유기업 개혁 초기 중소 규모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전환하여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다량 보유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형 국유기업을 주식회사화하면서 정부가 여전히 다량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 소유 비중이 높아진 결과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영역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주식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소유주별 주식 보유 비중(%)

연도	1998까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부	28.9	30.1	26.4	27.9	30.5	55.4	49.9
기업 관리자, 노동자	50.4	43.9	53.0	49.2	51.6	35.4	33.3
외부 국내 투자자	20.7	25.0	18.1	15.8	16.7	8.1	16.8
외국인 투자자	0.0	0.0	0.0	0.4	1.2	0.1	0.0

출처: Perkins & Vu Thanh Tu Anh(2010: 17)

그간의 베트남 경제성장과정을 보면, 특히 2000년대에 국가에 의한 선도산업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몫보다 선도산업이 아닌 사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이 성장에 기여한 몫이 컸다. 국가의 선도부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선도산업 이외 부문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편, 베트남에서 외국

인투자가 계속 증가하여 전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기 시작했다. 이는 점에서 베트남의 발전유형이 부분적으로 동남아 발전 유형으로 변화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요시하라 쿠니오(Kunio 1988)는 동남아시아 초기 경제성장 모델을 ‘대용 자본주의’(Ersatz Capitalism)라고 개념화하였다. ‘대용 자본주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이익에 종사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국유경제부문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큰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사유경제부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용 자본주의’와 같은 유형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의 초기 경제성장이 국가자본과 외국인투자자본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싱가포르 성장 모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지대추구행위의 만연으로 약탈국가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박은홍 2008).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유경제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시장국가로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나, 아직 공정경쟁의 장이 미흡한 상태다.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경제부문의 비중을 보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중국의 국영기업보다 더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전체 공업생산량에서 1998년 45.4%를 점하다가 2011년 17.6%를 점하는 것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중국 국영기업의 비중은 49.6%로부터 26.2%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GSO 2001: 253; GSO 2014: 479; Jefferson 2014: 316). 그간 경제성장이 1990년대에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2000년대에 사영기업의 성장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면, 베트남의 자본주의 성장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동남아 모델의 복합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베트남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외형상 유사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시장친화적이고 발전지향적 성과를 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베트남 국가의 경제 개입이 발전지향적이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의 유형을 띠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을 국영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동아시아 발전국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베트남 국가의 개입이 시장친화적 발전을 추구하지 못한 것은 베트남 정부가 국유경제부문의 보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중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발전 모델’은 단지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는 외형상 유사한 발전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V. 결론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정치체제 개혁의 유보와 점진적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으로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분석한 결과,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기여가 컸으며,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경제구조는 개혁 이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유경제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체제로부터 여러 소유부문이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해왔다.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지만, 국가의 정

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개혁 초기 국가의 탈집체화 정책은 농업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개혁이 진전되면서 국가의 기업정책은 국영기업 개혁과 사영기업 육성을 가져왔다. 그간 베트남의 경제발전과정은 국유경제부문의 보호와 육성, 사유경제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의 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국유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부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 있는 부문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경쟁력 있는 경제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국유경제부문의 보호와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발전전략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내는 데 한계를 지닌다.

개혁과정에서 성장의 동력은 농업부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국가가 선도하는 국영기업 부문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경제성장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단지 ‘유사 발전국가’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 박은홍. 2008.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서울: 아르케.
- 박종민. 2016. “월급 30만원, 법인세 절반...삼성·LG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뉴스1』 7월 13일.
- 백승욱. 2003.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 한국산업사회학회 위임, 『노동과 발전의 사회학』. 서울: 한울.
- 보겔, 에즈라. 장인역 역. 1993. 『환태평양 시대의 리더, 네 마리의 작은 용』. 서울: 고려원.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 이민자. 2008.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 동아시아 발전모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신아세아』 15(1): 68-94.
- 이한우. 2013. “베트남의 국영기업 소유구조 변화와 정부-기업 관계.” 『동남아시아연구』 23(2): 143-175.
- 이홍영. 1997. “등소평 사후의 중국에서의 발전국가.” 『아세아연구』 98: 35-63.
- 石塚二葉. 2005. “ベトナムは開発主義國家になれるか.” 『アジア研ワールド・トレンド』 113.
- 竹内郁雄. 1994. “規制された市場メカニズム」への移行-ドイモイ下の國營セクタ-改革の過程・現狀・課題-.” 五島文雄・竹内郁雄 編. 『社會主義ベトナムとドイモイ』.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Beeson, Mark & Hung Hung Pham. 2012. “Developmentalism with Vietnamese Characteristics: The Persistence of State-led Development in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4): 539-559.
- Beresford, Melanie. 1989. *National Unification and Economic*

- Development in Vietnam*. New York: St. Martin's.
- Beresford, Melanie. 2008. "Doi Moi in Review: The Challenges of Building Market Socialism in Vietna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2): 221-243.
- CPV(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1. *Documents of the 11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 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 Dixon, Chris. 2003. "Developmental Lessons of the Vietnamese Transitional Economy."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3(4): 287-306.
- Enterprise Law Year 2005*.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Evans, Mark & Bui Duc hai. "Embedding Neoliberalism Through Statecraft: The Case of Market Reform in Vietnam." Susanne Soederberg, Georg Menz & Philip G. Cerny (eds.), *Internalizing Globalization: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the Decline of National Varieties of Capitalism*.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ainsborough, Martin. 2010. "Present but not Powerful: Neoliberalism, the State, and Development in Vietnam." *Globalizations* 7(4): 475-488.
- GSO (General Statistics Office). 2001. *Statistical Yearbook 2000*.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02. *Statistical Yearbook 2001*.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04. *Vietnam Statistical Data in the 20th Century*. Vol. 2.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05. *Statistical Yearbook 2004*.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 House.
- GSO. 2006. *Statistical Yearbook 2005*.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08. *Statistical Yearbook 2007*.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11. *Statistical Yearbook 2010*.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14. *Statistical Yearbook 2013*.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GSO. 2015. *Statistical Yearbook 2014*. Hanoi: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 Hiebert, Murray. 1996. *Chasing the Tigers: A Portrait of the New Vietnam*.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 Jefferson, Gary H. 2014. "Reforming SOEs: Lessons for Vietna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Economic Reform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Lessons for Vietnam, Organized b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UNDP. Ha Noi: Nxb Khoa hoc xa hoi.
- Kozel, Valerie, ed. 2014. *Well Begun But Not Yet Done: Progress and Emerging Challenges for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Masina, Pietro. 2006. *Vietnam's Development Strategies*. London: Routledge.
- Masina, Pietro. 2012. "Vietnam between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ism: The Case of the Industrial Sector." Chang Kyung-Sup, Ben Fine & Linda Weiss (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Nguyen Cao Duc. 2012. "Renovating Vietnam's Growth Model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2001-2020." *Vietnam Social Sciences* 4-2012: 20-27.
- Nguyen Cao Duc. 2015. "Long-Term Dynamics of Vietnam's Growth in the Transition Stage towards Efficiency-Driven Stage to avoid the Middle-Income Trap."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83: 3-15.
- Nguyen Dinh Cung. 2014.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Restructuring Process in Vietna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Economic Reform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Lessons for Vietnam, Organized b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UNDP. Ha Noi: Nxb Khoa hoc xa hoi.
- Nguyen Duc Nhat & Nguyen Ngoc Anh. 2011. "Vietnam's Export-led Growth Model in the New Global Context." Kee-Cheok Cheong, Pham Minh Duc & Nguyen Thang (eds.), *From Low-Income to Industrialized: Vietnam in the Next Decade and Beyond*. Hanoi: The Gioi Publishers.
- Nguyen Hoang & Nhat Bac. 2011. "Tong ket 10 nam sap xep, doi moi doanh nghiep nha nuoc." <http://baodientu.chinhphu.vn> (검색일: 2011.12.08.)
- Nguyen Sinh Cuc. 2012. "Buc tranh chung ve Doanh nghiep Nha nuoc Hien nay." Ta Ngoc Tan & Le Quoc Ly (dong chu bien). *Doi Moi, Nang cao Hieu qua Doanh nghiep Nha nuoc:*

Bao dam Vai tro Chu dao cua Kinh te Nha nuoc trong Nen Kinh te Thi truobg Dinh huong Xa hoi chu nghia.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Nguyen Thi Huong. 2012. "Han che trong Hoat dong cua Doanh nghiep Nha nuoc o Viet Nam Hien nay va Giai phap Khac phuc." Ta Ngoc Tan & Le Quoc Ly (dong chu bien). *Doi Moi, Nang cao Hieu qua Doanh nghiep Nha nuoc: Bao dam Vai tro Chu dao cua Kinh te Nha nuoc trong Nen Kinh te Thi truobg Dinh huong Xa hoi chu nghia.*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Nguyen Thi Tue Anh, Luu Minh Duc & Trinh Duc Chieu. 2014. "The Evolution of Vietnamese Industry." WIDER Working Paper 2014/076. Helsinki: 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Önis, Ziya.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24(1): 109-126.
- Perkins, Dwight H & Vu Thanh Tu Anh. 2010. *Viet Nam's Industrial Policy: Design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 Chi Minh City: Harvard Kennedy School,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 & UNDP.
- Pham Sy Thanh. 2012. "Huong toi Lo trinh Thuc su Tai co cau Doanh nghiep Nha nuoc." Nguyen Duc Thanh (chu bien). *Bao cao Thuong nien Kinh te Viet Nam 2012: Doi dien Thach thuc Tai co cau Kinh te.* Ha Noi: Nxb Dai hoc Quoc gia Ha Noi.
- Reidel, James. 1993. "Vietnam: On the Trail of the Tigers." *World Economy* 16(4): 401-422.

- Thoburn, John. 2009. "Vietnam as a Role Model for Development." UNU-WIDER Research Paper No. 2009/30.
- Tran, Angie Ngoc. 1996.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the Vietnamese Textile and Garment Indust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Tran Dinh Thien (chu bien). 2014. *Kinh te Viet nam: Nhung Van de cua Khu vuc Doanh nghiep*. Hanoi: Nxb Khoa hoc Xa hoi.
- Tran Dinh Thien & Vu Thanh Tu Anh. 2012.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s Innovation of Growth Model." *Vietnam Social Sciences* 2-2012: 14-21.
- UNDP & CIEM. 2002. *The Enterprise Law's Enforcement: Achievements, Challenges and Solutions*. Hanoi.
- Van Arkadie, Brian & Raymond Mallon. 2003. *Viet Nam: A Transition Tiger?* Canberra: Asia Pacific Press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Vu Thanh Tu Anh. 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Vietnam: Impact of State-Business Relationship on Industrial Performance, 1986-2012." GEG Working Paper 2015/107.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me.
- Vu Tuan Anh. 1994.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Restructuring and Development in Vietnam." Vu Tuan Anh (ed.),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Asian Countries*. Hanoi: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 Vu Van Phuc (chu bien). 2012. *Doi Moi Mo hình Tang truong Co cau lai nen Kinh te*.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White, Gordon. 1988. "State and Market in China's Socialist Industrialization." Gordon White (ed.),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인터넷 자료

<http://hdr.undp.org/en/composite/trends> (검색일: 2016.05.30).

(2016.07.31. 투고, 2016.08.10. 심사, 2016.08.16. 게재확정)

<국문초록>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이 한 우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으나,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제발전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베트남, 동아시아, 개혁, 경제체제, 발전모델, 발전국가

<Abstract>

Does Vietnam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 Study of the Developmental Model in the 30 Year
Reform Process

LEE Han Woo
(Sogang University)

Vietnam has proceeded the gradual reform without radical political change since launching the 'Doi Moi', the comprehensive reform policy adopted in late 1986. Vietnam has been evaluated as a country to perform the economic growth for 30 years successfully, although there were economic recessions for a short time. Through looking at the process of reform, while the state economic sector and foreign-invested sector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initial stage of reform,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nd foreign-invested sector's economic roles have increased and the state sector's role has been decreased, as the reform has been proceeded.

As the state's developmental role has been revealed prominently in the reform process and state's involvement into economic affairs in Vietnam, it is reasonable, in part, to categorize Vietnam as a developmental state lik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However

this evaluation is tentative, as it seems that Vietnamese state's industrial policies have contributed economic growth partly and remarkable economic growth has been shown in the sector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focused. In conclusion, Vietnam has changed into a mixed country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formally and the featur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focused more on the foreign-invested developmental strategy.

Key Words: Vietnam, East Asia, Reform, Economic System,
Developmental Model, Developmental State